

#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이 '방재 가이드'로 재해 시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무엇을 해 두면 좋은지를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우가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  
▶▶▶ P.12 대피 행동의 선택 기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피 장소를 몰라요.**  
▶▶▶ P.36 히라카타시의 대피소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패닉에 빠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 P.26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집에서 대피 장소까지 가는 도중에 위험한 곳은 없을까?**  
▶▶▶ P.40 재해 예측도의 사용법

**옆집 할머니가 대피할 때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까?**  
▶▶▶ P.34 재해 시의 서로 돕기와 응급 처치

**비상 반출 가방은 무엇을 넣고 어디에 놓아 두지? 무거워지지 않도록 나눠서 두는 편이 좋지.**  
▶▶▶ P.28 비상 반출품과 비축품

**내 방 옷장이 지진 때 넘어지면 깔려 버릴 것 같아... 지금 어떻게든 해야겠다!**  
▶▶▶ P.24 집안의 안전 대책

## 발간을 맞이하여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매년 자연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라카타시에서도 2018년에는 진도 6약을 기록한 오사카 북부 지진이나 태풍 21호로 인해 대규모 정전 및 가옥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쳐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염증의 확산과 자연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수의 부상자와 감염자로 인해 대피소에서의 혼란이나 의료 붕괴가 우려됩니다. 히라카타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침 및 매뉴얼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생 기자재 배치 및 대피소 개설 훈련 실시 등 방재·감재 대책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방재 가이드 개정판은 2021년 5월에 재해 대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정촌이 발령하는 대피 정보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피 권고'를 폐지하고 '대피 지시'에 대한 통일과 대피 정보의 명칭 변경에 대해 반영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제1차 대피소의 장소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게재 내용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소의 대비나 재해 시의 적절한 대피 행동으로 이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타카시